**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새해를 시작하고 2024년 처음 소식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나눕니다.

지난 편지에 나누었던 거주증은 1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국제 정세와 이-팔 전쟁으로 유럽 사역자들이 연장을 못 받고 출국했다는 소식과 신청하고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감사하게 50일 정도에 새거주증을 수령했습니다. 동역자님들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발급을 기다리면서 땅끝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로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1년을 더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저와 함께 이 땅의 기경과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혼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자세히 씁니다.

 H 부인(65세) 가정은 이곳에서 가장 오래 교제하고 있고 췌장암 환자인 부인은 식생활과 여러 사정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서 친구들과 멀어졌는데, 지난주 방문했을 때, 큰 딸 가정의 어려움을(사위의 우울증과 술 담배, 생활습관, 시댁과의 관계) 말하고 부인은 골감소로 인해 관절의 통증과 다리를 절면서 걸어서 복음을 나누고 싶었는데, 이 가정은 야당 성향이라 막내딸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선지자로 믿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막내딸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는데, 연령제한으로 수영장 출입제한과 대회에 출전 기회도 제한적이라 자비로 2월에 도하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차갑다고 했더니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 해서 기도가 끝나고도 한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언론과 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막내딸(수영과 방위산업체 근무)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이 가정이 공식적으로 종교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과 의사인 둘째딸이 지난 가을 직장을 지방으로 옮긴 후에 만나지 못했는데, 토요일에 막내딸이 유명 사립대학의 세미나의 발언자로 초청받아 동행을 위해 집에 온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 명절 음식을 준비해서 H부인 집에 방문하여 교제할 때, 성령께서 이 가정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해 텃밭 농사와 함께 새롭게 연결되는 영혼들과 기술고등학교들의 세미나(?) 요청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함을 나눕니다. 무는 더 없어서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해서 재구입을 원하는 문자와 올해 구입 예약도 받고, 협업한 학교 농업과에 성탄절 선물 증정과 교사 30명과 농업과 학생 11명을 위한 쇠고기무국 시식과, 즉석 동치미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지만 제가 원했던 학생들과 담소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 기술고등학교 한식 세미나도 잘 마쳤지만, 활동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제할 영혼과 주께로 돌이키는 자를 위한 기도의 수고와 성령께서 일하셔야 함을 느낍니다.

 연말연시에는 자동차로 E시의 S를 방문하여 9일을 지내고 왔습니다. 농사한 무를 가고 가서 동치미도 담고 생우유로 이 나라의 치즈 만드는 법도 배우고, S의 지인 가정 방문도 하고(남편은 변호사, 2남 1녀) 2016년 9월 행사에서 처음 S를 만났던 얘기와 그때 같이 만났던 친구(대학에서 꽃 연구원) 집에 초대받아서 교제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 현직에 있고 신년이라 주중에는 회의 등으로 바빠서 토요일에 초대받아서 교제하고 오느라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S의 제자 A는(31살 결혼해서 제가 사는 도시에 사는데 연말연시 휴가에 친정에 와서 S에게도 인사를 와서 만났는데, A 남편과 6개월된 아들과 같이 왔고, 부모님은 겨울에는 E시에 머물고 농사철에는 E시 가까운 지역에서 농사와 양봉을 한다고 하여, 교제의 접촉점을 위해 벌꿀 구입을 하면서 친정부모님과 막내 여동생(15살, 간호학교)과도 안면을 트고 왔습니다. 3주전 A의 집에 방학을 맞은 막내 여동생이 왔다고 하며 방문했더니, A는 다섯 자매 가운데 셋째인데 넷째인 기혼 여동생(임신5개월, 이 도시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 도시 거주)도 있고, 조리를 전공한 A가 한식에 대한 관심과 김밥을 궁금하길래 지난주에 A가정과 자매들을 저의 집에 초대해서 김밥과 양갈비구이(Pirzola:피르졸라)를 준비해서 대접했는데, 앞으로의 교제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기를, 지면상 적지 못한 N가정, U부인 가정, Ç의 자매들과 부모님과 이모 가정, F부인(옷 수선) 가정…..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나라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선거 이후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관심거리이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느껴져서 주께 의뢰합니다.

 1년 거주증으로 올해의 계획을 조금은 여유롭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27일부터 1개월은 아제리를 방문할 예정이고, 봄과 여름에는 연결된 영혼들의 텃밭에 메주콩과 팥, 들깨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농사를 짓고 9월에 한국 방문을 계획합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믿지 않는 이 나라 사람과 아제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준비를 위해(문화체험, 방문 도시, 지인들과 교제, 예배 참석 등) 기도가 요청됩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제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영혼들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영혼들을 편지로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영육이 지치지 않기를…… 동역자님들이 얼굴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기를 소망하며 영혼들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2024. 2. 6. 김에스더 드림